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6

2018.6.24

창립30주년 기념호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
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시리라 _ 빌립보서 4:6,7

오늘의 주요기사

- 2 연간 특집
- 3 창립 30주년 행사
- 4-5 담임목사 인터뷰
- 6-7 돌이켜보는 주님의교회 30년
- 8 축하 기고
- 9 창립 30주년에 바란다
- 10 호국보훈의 달 특집
- 11 교단 소식
- 1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13 목회칼럼 / 지역 소식
- 14-15 신임 임직자 소개
- 16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6/24(주일) 30주년 창립기념주일 /
창립기념예배
- 6/27(수) 겨자씨인도자 교육 1학기 종강
- 7/1(주일) 성찬주일
- 7/6(금) 금요기도회
- 7/8(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30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㉓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2)

〈함줄함울〉은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 볼 기회를 갖기 위해,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왔다. 오늘은 이 연재의 마지막 호이다.

목차

1. 종교개혁과 ‘거룩한 교회’의 참된 의미
2.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4. ‘마을목회’의 성서적 배경
5.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세상 속으로’

“

올해의 교회 주제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기독교왕국의 패러다임, 비판과 반성

한국에 온 서구의 선교사들도 이런 기독교왕국의 선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독교왕국의 선교 패러다임을 한국교회가 계속 견지해 온 이유는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이것을 부지불식중에 받아드렸다. 이 패러다임이 그동안 급격한 한국교회성장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구에서 교회와 선교가 위기를 맞으면서 서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교단이나 종파의 확장을 목표로 한 선교에 몰두해 왔으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식민주의정책에 동조하거나 무비판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독교왕국의 선교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 이해와 충돌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불교나 유교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온 나라를 주도했던 불교왕국(Buddhism, 고려)나 유교왕국(Confucianism, 조선)이었던 적은 있어도 서구에서와 같은 기독교왕국이었던 적은 없었다. 이 사실은 해외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도 여전히 선교지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자신이 마치 기독교왕국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행해왔던 기존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교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되어야 한다.

사실 문자적으로 ‘선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missio’는 ‘보냄(sending)’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서 선교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점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말할 때 ‘사도’란 말의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가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변화시키고자 아들과 성령을 보내셨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께서는 교회도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단순히 교회의 기능이나 조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며 선교지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라면, 해외나 특별한 곳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가 서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된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교회가 위치한 마을과 지역이 구체적인 선교지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포괄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그들이 서있는 마을과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구체적인 선교현장을 갖는다. 그렇기에 선교적 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리고 교회가 서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다.

성육신적 차원에서 예수께서 구체적인 상황의 문화 속으로 오셨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이 서있는 구체적 현장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세상의 사탄적 문화를 비판하고 생명과 부활과 살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자신이 서있는 각각의 현장에서 그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들의 현장

에 대한 이해에 귀 기울여야 하며, 교회의 이웃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는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교회는 자신이 서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시로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산위의 동네’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교회가 드러내는 공동체적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예수 사이의 사랑의 교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요 17:17-23).

결론 : 마을과 지역의 거룩한 공동체

결론적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드러내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사렛 예수로 사신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가 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을의 교회로 살라는 요청이다. (끝)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1988~2018

주님의교회가 보낸 30년 주님이 몸소 행하신 30년



주님의교회가 2018년 6월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사람을 비우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이름을 비웠던 바탕은
아마도 '비움'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 터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빌 2:7)던 것을 본받아,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온 지난 3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며,
몸소 행하신 것임을 여기에 고백합니다.

제1대 이재철 목사는 '본질성의 회복'을 큰 가치로 삼았고,
제2대 임영수 목사는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강조했으며,
제3대 문동학 목사는 '사회를 섬기고 치유하는 사역'에 힘썼고,
제4대 박원호 목사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를 목회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부임한 제5대 김화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임기 10년을 시작했습니다.

〈함글함글〉이번호는 창립 30주년 기념호로 꾸몄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하고,
김화수 담임목사의 기념 인터뷰와 화보로 본 지난 30년,
정신학원 두 교장 선생님의 축하 메시지와
교회 안팎 여러분의 더 나은 교회를 위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다가올 30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의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 기념 행사 소개

음악예배,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펼쳐져

창립 기념일을 전후하여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설치된 창립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창립기념일 전주일인 6월 17일 창립 기념 사진 전시회가 교회 로비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20일에는 기념 음악예배가 드려졌다. 그밖에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가 6월 20일 저녁 7시 20분 대예배당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려졌다. 평소 찬양대의 기념 연주로 진행되었던 기념음악회와는 달리, 이번 음악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채를 띠었다.

찬양인도팀의 인도로 시작한 이날의 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찬양대가 회중과 번갈아 찬양을 드리면서 빛을 발했다. 김대환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김익훈 장로의 기도와 김화수 담임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어 어린이 합창대, 회중 찬양, 시온 남성찬양대, 주오 연주, 국악팀 연주, 회중 찬양, 권사회 찬양팀, 회중 찬양, 솔리스트 중창단, 연합 찬양대, 파송 찬양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김화수 담임목사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각급 찬양대 294명을 포함, 연출과 진행, 무대작업, 방송실과 기관실 등 총 300여 명의 인원이 이 예배를 위해 땀을 흘렸으며, 예배석을 가득 메운 700여 회중이 또 하나의 찬양대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창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주님의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념사진전이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교회 로비 앞 광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교회 초기 모습부터 신임 담임목사 부임에 이르는 역사를 50여 개의 사진에 담아 전시하고 있어, 교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6월 24일 기념주일에는 평상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 순서를 넣어 이날을 기념한다. 이날 기도는 교회 창립 헌신자가 드리며, 전임 교역자, 협력기관, 정신학원 관계자, 지역 사회 인사 등이 초청된다. 특별 순서로는 기념 영상 상영, 주님의교회 비전 30선언,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특송 등이 이어진다.

신앙사경회, 설문조사, 기록자료, 함글함글 특집

6월 이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의 이모저모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기록자료 제작 등이 추진되며 9월경에는 신앙사경회가 예정되어 있다. 〈함글함글〉에서는 특집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을 통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한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 담임목사 인터뷰

주님의교회 30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살아있는 모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줄함울에서는 창립기념행사 준비와 교인 면담 등으로 여념이 없는 김화수 담임목사를 만나 감회와 각오를 들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지난 해 12월 주님의교회에 부임 후, 올 5월에 위임식을 갖고 노회의 승인을 받은 위임목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

함줄함울

함 :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인터뷰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부임하신 후 〈함줄함울〉과 인터뷰를 하신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창립 초기 부목사로 재임하셨던 교회에 담임목사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어 30주년을 맞게 되셔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20일에 위임목사로 위임식도 마치셨으니, 6개월 전과는 달리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완전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두루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위임식이 있었지만, 제가 작년에 주님의교회 청빙을 받고 올 때, 이미 “네 십년 나 다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십년간 헌신을 다짐하고 왔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라는 것 외에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처음에 비해서 이모저모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청빙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할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알게 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구체적인 사역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함 : 30년 전, 주님의교회는 산업화 시대 경제 성장 모델에 영합하여 교회 규모의 성장과 건물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당시 한국 교회의 풍조에 반발하여, 교회 본질의 회복을 모토로 삼아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설립 이후 이 땅에 남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님의교회는 여러 관점에서 좋은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주인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주인이 몇몇 리더나 소

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풍토였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생기면서, 주님이 주인 된 교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30년의 역사 동안 이 정신을 공유해오면서 대사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어왔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늘 경계해야겠지요.

함 : 30년은 보통 한 세대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30년 전 40대 안팎의 젊은 세대였던 창립 교인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 원로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의 89%는 정신학원으로 옮긴 1998년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즉, 주님의교회 초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공유하는 분들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화권 목사님은 3년 전 창립 27주년 〈함줄함울〉 특집으로 기고하신 글에서 주님의교회가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다른 대형 교회의 분란과 문제를 피해 수평이동한 교인들이 주님의교회로 옮겨오신 후, 교회가 표방하는 몇 가지 제도 아래 안주하면서 정작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산층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무를 위험이 있음을 적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0주년을 맞아 교회 내적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린 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세상물이 들어갑니다. 수평 이동한

교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믿는 자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으면, ‘우리들만의 천국’에 안주해 있는 교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방교회인 안디옥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사는 그들의 삶이 돋보일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워서 역사의 무대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교회가 내적으로 가장 강조해야 할 덕목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여, 말씀과 기도를 실제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향하고 강조할 가치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사역들도 그런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실제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함 : 교회가 3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창립 당시에 주축이 되었던 세대가 원로가 되심과 함께, 그 이후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바람직한 전통이 장년부에서 청년부로 원만하고 생

산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년부와 청년부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고 일종의 거리감이 있다는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년층과 장년층의 갭은 요즘 교회뿐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현상 속에서 모두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방안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유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장년과 청년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 청소년과 유소년, 유소년과 미취학 아동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발단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전의 교회에서 미취학 아동, 유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모여 예배와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절로 형성되던 긴밀한 관계와 공동의 문화가 사라진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구성원 간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세대별로 볼 때, 미취학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등에도 전임사역자를 두어 청년층과 장년층과 함께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올해 시작한 큐티나 교회의 7대 미션도 미취학 어린이부터 유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공통의 기억과 문화를 형성하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생소하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부모와 다음 세대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케 하는 공통분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 : 정신학원은 1978년 잠실로 교사를 이전했으니, 올해로 잠실 이전 40주년이 됩니다. 주님의교회의 지난 30년간 있었던 주요 사건 가운데 아마도 20년 전 정신학원과 맺은 동행의 관계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매우 중요한 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의교회는 정관에 ‘청소년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키워드로, 정신학원



과 좀 더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로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정신학원과 우리는 언제나 긴밀하고도 상생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신학원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로 만나 함께 관계를 맺었고 협력과 상생을 해왔습니다. 어떤 주체이든 양자의 관계가 지속되면 이런 저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신학원과 주님의 교회는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족 개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신학원과 우리가 더 긴밀해지고 상생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정신학원이 좋아할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상 저런 복안이 좋아보여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지원을 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정신학원에서는 그것이 별로라면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보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학원과 관계에서 청소년 사역의 키워드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정신학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바라고 좋아하는 일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구상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함 :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자본주의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상생적 결합을 가져왔다는 관점도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독일과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루터교의 직접적인 자장에 놓여 있던 국가들처럼 사회 자체를 사랑·관용·평등이라는 기독교 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분배와 공동체 중심의 복지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 사회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랜 냉전 시대의 유물이었던 이데올로기적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국제관계에서나 정치적으로

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미투 운동과 같은 인권 문제,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빈부의 격차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가 동시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통과 관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청함과 함께, 다양한 의미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새삼 되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워낙 폭이 넓고 검토해야 할 점이 많은 질문이어서 한두 마디로 답하기가 어렵군요.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야 할 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욱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속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회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사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역에 앞서서, 말씀을 기반으로 사역을 행하는 토양, 스스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기본 토양 위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 : 창립 30주년은 필연적으로 앞으로의 30주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사무하시는 10년은 그 30년의 가장 첫 번째 10년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 거시적 관점을 전제로 주님의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임 후 6개월, 별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개략적으로라도 정리되신 중장기 설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10년은 우리 교회에



주님의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 가치를 존중하고 일탈을 경계하며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일상 속에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의 영성을 깊이 하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움 받는 것입니다. 그 토양 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선교와 구제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7대 미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예수님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이 10년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함이 많은 제 자신이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동역자로 섬기면서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더 열심히 준비 할 것입니다.

함 : 그 많은 일을 하시려면 참 바쁘시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직접이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주님의교회 밖 교계의 일이나 타 단체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잘 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잠언27장 23절의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10년을 사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게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주시면 만나 뵙고 소통하겠습니다. 선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오시려면 선임목사나 간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면담 시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정이 허락하면 직접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흔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함 : 마지막으로 창립 30주년을 함께 맞는 주님의교회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때에 주님의 교회 교우들과 동역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낸 날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갭을 좁히는 삶을 사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화수목사는 아직 못 다한 말씀이 많은 것 같았으나,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를 앞두고 있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다음 약속이 또 있다는 말씀이어서 서둘러 인터뷰를 마쳤다. **함글함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주님의교회 30년, 비록 거쳐간 사람들은 많았더라도, 그 모든 이들의 마음과 손을 움직여 오늘을 있게 한 이는 분명 주님일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조심스럽게 펼쳐는 지난 30년의 자취가 온전히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고백합니다.



1988, 교회 본질의 회복을 꿈꾸며 창립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교회의 첫 번째 주보,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26일,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53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리면서 출발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회의 목표로 여기던 시절에, 주님의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교회 이름을 ‘주님의교회’라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
창립 예배 때의 봉헌 전액을 헌금한 전남 묘도 온동네 교회. 창립 이틀전에 열린 교회창립준비기도회에서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했고, 첫 봉헌 430만원 전액을 8월 10일 온동네 교회 건축헌금으로 전달했다. 이후 초기의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50:50의 원칙은 주님의교회의 헌신과 검약을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다.



여기가 바로 교회임을 밝혀 주는 낮은 입간판
나무로 만들어진 낮은 입간판. 창립 이래 지금까지 놓인 곳이 주님의교회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상징이다. 1990년 이재철 목사가 ‘예배당 무소유’에 대해 언급하고, 교회란 건물이나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밝힌 이래, ‘예배당 무소유’의 원칙이 오랜 시간을 거쳐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약속으로 형성되었고, 정관에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되었다.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한 낮은 곳에서의 섬김
2004년 유진벨 재단을 통한 북한 결핵 환자 지원. 주님의교회는 1989년 대한 예수교장교회 통합총회 평양노회에 가입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평양노회에 가입한 데에는 여러 까닭이 있지만, 이에서도 외롭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주님의교회는 1997년 사랑의 쌀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약품과 물품 등을 후원,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일어서라’는 주제로 시작한 전교인수련회
2008년 전교인 수련회의 성막체험. 창립 이듬해인 1989년 7월, 대전 중앙교회 기도원에서 ‘바로 일어서라’라는 주제로 제1회 전교인수련회가 열린 이래 매년 전교인 수련회를 갖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인이 급속하게 늘어나 전교인을 한 번에 수용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지게 된 후에는 해를 건너뛰거나, 교구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고, 전교인사경회를 열어 수련회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라

1996년 8월 〈함즐함울〉 창간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에 따라, 문서선교를 위한 교회신문 〈함즐함울〉이 창간되어, 교회 안팎의 소식을 전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공식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에는 〈함즐함울〉과 주보, 당회록,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2013년까지의 역사를 꼼꼼히 담은 〈주님의교회 25년사〉가 간행되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를 위한 첫걸음, 임기제
안수집사와 권사에게까지 임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던 1996년의 당회록.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창립정신은 교회 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창립 때부터 주보에 교역자의 이름을 실지 않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더 존중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와 더불어 1996년에는 안수집사와 권사도 임기제를 적용했으나 사역 유지의 어려움으로 2000년 철회되었다.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

2006년 캄보디아 우물파기 단기선교,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의 근간이었다. 50:50의 원칙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 2005년에는 쓰나미 재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기금을 지원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위구르 지역 등에 우물 파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2011년에는 대외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설립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본분, 청소년 사역

무지개 축제. 청소년 사역은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일터이다. 2002년 5월 처음 열린 무지개축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기획되어, 이후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해 교회 어린이와 이웃,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교회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2012년부터 시행된 교회 정관에는 실천이념의 하나로 명문화되었다.



하나님의 것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주님의교회의 헌금 봉투. 1989년 누군가 봉헌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봉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봉헌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데에 모두의 생각이 미쳤다. 1992년 5월 3일의 당회에서 '무기명 헌금'을 결의했고, 17일부터 전교인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렸다.



백삼십년 역사 정신학원과 은혜로운 동행

1998년 김마리아홀 준공기념비 제막식. 전도사 한 명과 53명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주님의교회는 1995년 하나님의 인도로 정신학원과 은혜로운 동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강당을 주님의교회에서 건축하고,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1996년 3월 정신여고 4층 강당으로 이전했고, 1998년 11월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을 준공, 정신학원에 기증했다. 2002년에는 중강당과 생활교육관을, 2013년에는 다목적교육관을 지어 기증했다.



창립정신을 담은 두 개의 번식교회

2006년 캄보디아 우물파기 단기선교,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의 근간이었다. 50:50의 원칙도 이를 위한 것이었다. 2005년에는 쓰나미 재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기금을 지원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위구르 지역 등에 우물 파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2011년에는 대외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설립했다.



2018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30년의 역사

2018년 6월 20일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 지난 30년동안 제1대 이재철 목사는 '본질성의 회복'을 사명으로 삼았고,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는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2017년 부임한 제5대 김화수 담임목사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목회이념으로 삼았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 축하의 글

주님의 간섭 속 30년, 축하합니다

정신학원은 1887년 6월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여의료선교사 애니 엘러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895년 10월 종로구 연지동으로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주일에는 학교가 예배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기독교 교육을 금지하는 일제에 항거하다가 폐교의 어려움을 겪었고, 1947년 복교가 되었습니다. 복교 당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마련한 것이 1950년 대강당입니다. 이유는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이곳 잠실로 이전 후, 학교 남쪽 아파트 건설사가 일조권 의 대안으로 1982년 체육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체육관도 예배처소로 쓰였습니다. 마룻바닥에 전교생이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실로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는 연지동에 있던 대강당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1969년 창단된 노래선교단이 주님의교회에 순회연주를 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은 정신 노래선교단 출신이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학교는 교회가 우리 학교에 대강당을 지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주님의교회는 교인수도 적고, 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니 엉뚱하기도 한 제안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은 ‘교회는 건물 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석한 몇몇 장로님들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실로 이 가당치 않을 일이 실제로 이어져 1998년 대강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최초의 학원과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신학원이 잠실로 이전한 지 40년이 되는 해, 주님의교회 창립 30년, 대강당 건립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울타리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회가 함께 삽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1980년대에 TV 드라마에 ‘한지붕 세가족’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으로는 이야기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들, 섭섭한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어엿하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필이면 학교 안에, 그것도 정작 건물은 교회가 지은 것인데, 빌려 써야 합니다.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톱밥의 난로 주변에 모여앉아 예배드리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 대강당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체육관 마룻바닥에서 몇 시간을 앉아 신앙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 학생들은 저절로 교회를 접합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학년 예배 중에서 가장 찬양 준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학년은 놀랍게도 고3입니다. 주님의교회의 30년은 이처럼 이 땅의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를 향한 30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잘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타지로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밭을 차꼬에 차고 몸을 쇠사슬로 묶은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 105). 우리 신앙인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학교와 교회를 한 지붕 아래 있게 하시어 ‘너희 이 공동체에서 서로 불편함을 참고 오히려 섬기며 거기 열매를 담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를 한 울타리 안에 묶은 지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학교와 주님의교회로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주님의교회 30년을 축하드립니다.

이희천 교장 / 정신여고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 축하의 글

아름다운 동거

주님의교회의 서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이 함께 한지 스무 해가 된 것을 너무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본교 개교 130주년을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신 주님의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는 저희들이 주님의교회를 향해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 사이의 인연 맺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신학원은 종로구 연지동에서 잠실로 이전해온 지 올해로 꼭 사십년이 됩니다. 처음 이전해 왔을 당시 잠실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건물 세 동으로 이루어진 학교에는 강당이 없어 교실 세 칸 크기의 시청각실에서 학년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체육관이 마련된 뒤에는 체육관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예배에 집중하도록 지도하기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신의 모든 식구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턱없이 많은 건축비를 마련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기로 하는 주님의교회를 우리 정신학원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전교생이 다 함께 모여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성취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전체 기독교인 중 청소년의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학원선교는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독교학교에서조차 여러 가지 제약과 학생·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션스쿨이 미션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학원에서만큼은 무리 없이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은 마지못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폐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본교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를 바르게 지켜내는 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라 생각하여 교목실을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주님의교회가 학교 안에 함께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로 인해 우리 정신학원은 기독교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많은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많은 혜택들이 주님의교회의 후원 덕분임을 알고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은 청소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함께 하는 동역자입니다. 두 기관이 한 울타리에서 함께 동거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 우리 학생들이 재학 중에 또는 졸업 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며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큼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은 더욱 견고하게 연합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창립 삼십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박혜성 교장 / 정신여중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 | 창립 30주년에 바란다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되기를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더욱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교회 안팎의 여러분에게 여쭙었습니다. 소년부에서 늘푸른나무까지, 집사에서 정신학원 선생님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격려와 채찍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글함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 소산의 일부를 조금 남겨두어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 것처럼 내가 가진 일부를 남을 위해 배려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신 집사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서로 친해지기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어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찬양 후 기도 드리는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쉬운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로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김지유 / 중등부

세대의 차이를 이해로 극복하는 교회

교회가 더 발전하려면 이분화되어 있다시피 한 세대 간의 차이점에 대해 강요보다는 이해하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담임목사님이 바뀌며 성도들이나 청년부 내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어 전반적인 보살핌과 변화도 같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희 / 2030 겨자씨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인도하는 교회

교회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인도하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수록 하나님을 또 서로를 사랑함이 더욱 커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남혜림 / 청년부

어린이도 머무를 곳이 많은 교회

부모님의 봉사 시간 동안 저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나 쉴 곳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더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비 / 소년부

학생을 배려하는 교회

정신학원 교문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학교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문을 쏙살같이 통과하는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공존하는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가 주차문제로 평일에 등하교 학생들 앞에서 작은 언쟁이라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교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경춘 집사 / 정신학원

믿음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 뿌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큐티, 새벽기도, 말씀읽기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대상 및 탈북대학생 대상 교육 및 장학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동구 집사

문서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는 역량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고 시대에 합당한 실천의 방법을 고민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정리, 출판하는 문서선교사역을 구체화하는 것도 주님의교회의 사명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천숙 장로

새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교회

새신자들에 대한 좀더 깊은 배려와 육성책을 마련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영백 안수집사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모범을 보이는 교회

그간 교회에서는 건물 무소유, 재정의 50:50 사용 기준 등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기본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30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다 우리만의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추가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하나님 앞에서 모범되며 차별화된 교회로 서갔으면 합니다.

양재성 / 2030 겨자씨

자유롭게 생각하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회를 더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와 한국 교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영 /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교회

주님의교회의 모든 예배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가식적인 삶과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며, 속한 지역사회의 고단함을 찾아 함께 하며 위로하고, 통일 선교를 강화해 북한에 생명이자 흐르도록 더욱 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근희 권사

사회의 병리증상을 치유하는 교회

지난 30년 동안 규모의 성장과 함께 질도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창립 초기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는 내재적 능력이 견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여 여러 사회적 병리증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전영선 권사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축제가 있는 교회

먼저 30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주님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과 축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사역원에 있는 복사기 바꿔주세요.

정세민 / 고등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의교회를 보고 마음에 따뜻한 것이 올라와서 예수 믿고 싶어지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일찬 선생님 / 정신여교

학교와 건강한 관계를 키워가는 교회

주님의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정신의 교정에 함께 해서 그런지 늘 가깝게 느껴지고, 외부에서 주님의교회 얘기를 들으면 내 교회 얘기인양 귀를 쫓긋하게 되네요. 건강한 관계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와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정혜련 선생님 / 정신여교

북한선교와 통일준비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가 통일준비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로는 이미 많이 뻗어 나갔지만 유독 통일준비에는 더딘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북한선교와 통일준비에서 찾는 것이 이제 우리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조경일 / 탈북청년

호국보훈의 달 특집

예수의 평화(2)

승리와 패배 사이에서 : 권리를 포기하고 패배를 선택하기

“로마의 평화”가 내세우는 거시적 차원의 폭력과 지배질서는 미시적 일상과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정신 안에 내면화된다. 국가 차원의 전쟁과 승리 승배는 그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일상을 경쟁과 갑질의 장으로 주조한다. 이를 통해 최고 신분의 엘리트부터 밑바닥 노예까지 그 일상과 마음 안에 제국의 평화 프로그램이 새겨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따라서 “예수의 평화”는 일상과 그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구조까지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흔히 말하듯 고대 지중해 세계의 가치의 원천은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그레코-로만 정신의 심층 구조”라 부르기도 했다. 모든 선한 것과 옳은 것이 명예에서 발원하며, 모든 악과 거짓이 수치와 관련된다. 명예는 일면 마치 우리 시대의 자본과 비슷해서 축적되거나 그 소유 정도를 따라 등급 매겨질 수 있었다. 로마제국에서 명예는 신분제의 모양을 따라 피라미드 형태로 분포했다. 이러한 명예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황제가 있었고,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는 치열한 명예 선점 경쟁이 이루어졌다. 명예 경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하여 로마제국 모든 도시에서 가시적으로 행해졌다.

오늘날 로마제국의 상투적 이미지로 회자하는 “빵과 서커스,” 즉, 경기, 축제, 음식 기부, 공공건축 등은 바로 엘리트 계층 명예 경쟁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러한 경쟁은 사적 탐욕의 차원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른 공적 행위로서 인정받았다. 보통 성서에서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자기 과시는 정당한 사회적 행동이었고, 그리스적 고등 교육의 징표였다.

이러한 풍조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의 평화”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한 마음 깊은 곳

“로마의 평화”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크고자” 하며, “으뜸이 되고자” 경쟁한다. “예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를 역전시킨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관해 무지했던 제자들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도 “누가 높을가”를 두고 싸웠다(마가복음 9:33-34). 급기야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공하실 때 자기들을 더 높여주시길 청탁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동일한 욕망에 휩싸여 화를 냈다(마가복음 10:35-41).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개역개정 마가복음 10:42-44 중)

“로마의 평화”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크고자” 하며, “으뜸이 되고자” 경쟁한다. 그렇게 일상은 전장이 되고, 그 경쟁의 승리는 명예롭고 신성한 것으로 숭앙된다. 승리한 삶의 모범은 결국 이 승리를 쟁취한 이들인데, 그러므로 개인의 기호에 종든 싫든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삶의 모델이 된다. 이처럼 모두가 우러러보고 삶의 모범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방인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일상의 특징은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동사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그리스어에서 이 두 동사는 공통으로 “카타”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어 “카타”의 기본적 의미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이다. 이 접두사가 “상전이 되다(퀴리에우오)”라는 의미의 기본 동사 앞에 붙어서 다소 밋밋해 보이는 기본형을 “위에서 아래로 상전질하다(카타퀴리에우오)”라는 좀더 생생한 의미로 강화해준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서는 “임의로 주관하다”라고 옮긴다.

마찬가지로 “권력을 사용하다, 권위를 실행하다, 권리를 즐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엑수시아조)에도 동일한 접두사(카타)가 붙는데 (“카텍수시아조”), 이를 통해 권력질이란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개역개정 성서는 이를 “권세를 부리다”라고 옮긴다. 게다가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 두 동사는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갑질의 주체가 “집권자들”과 “고관들”로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배하고 이들을 삶의 모범으로 삼는 세계는 단순히 미학적 의미에서 “크고자” 하며, “으뜸이 되고자”하는 세계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큰 자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섬기는 자,” “종” 같은 아랫것들을 놓고 “위에서 아래로” 주인질하고 권력질하며 그 힘을 즐기는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 안에 있는 일상의 모습이었다. 예수의 답변은 단호하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를

역전시킨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패배나 마조히즘이 아니다. 관여를 포기한 동조의 침묵도 아니다. 이러한 패배와 포기는 (로마의) 평화와 질서의 이름 아래 질식한 일상에 찌렁찌렁한 울림이 되어 돌아온다. “로마의 평화” 한복판에 떨어진 “예수의 평화”는 일상을 전장으로 바꾸고 인간의 삶을 함부로 패배라고 규정하는 폭력적 질서에 저항한다.

세속의 풍조를 역행하여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승리가 아닌 패배를 추구한다는 것은 패배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패배를 통해 “승리와 패배”라는 폭력의 이치논리를 소멸시키고 정의롭고 온전한 평화를 꿈꾸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평화”를 좇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섬김과 종노릇”은 일상의 반란과 내면의 전회를 포함하는 세상을 향한 가장 깊은 차원의 도발이자 도전이다.



‘예수님의 평화(Pax Christi)’를 상징하는 그림. 1999년 예루살렘 근처 ‘사막의 성 요한 수도원’ 벽에 그려졌다.

평화를 염원하는 2018년의 6월, 우리는 어떤 평화를 꿈꾸고 있는가?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길 기원해본다

손경민 전도사

교단 소식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촉구

주님의교회가 속한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는 세계교회협의회 의 2018 중앙위원회를 취재 보도한 6월 21자 기사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가 4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과 6월 북한과 미국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변화된 한반도의 평화적 전망을 재평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기독교공보>에 따르면, 20일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핵을 무장한 군사적 대결을 줄이고,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위한 최근의 조치가 희망적임을 확신한다”며, “핵무기 대결 직전에 성사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상회담



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위원회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정상 간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도 촉구했다. 또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등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에 의해 시작된 방문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1953년 휴전 협

정을 평화 협약으로 전환하고 완전한 통일을 위해 핵무기 파괴, 군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이 30년 이상 지속된 전 세계적 관심사와 평화를 위한 목표에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과 북한 국민의 자율성 보장,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 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 분단에 따른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한국 전쟁의 종결 선언 및 1953년 휴전 협정을 평화 협약으로 대체,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전환, 경제 협력 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함글함글

사역 소식

통일을 살라! 평화, 통일, 생명의 길

제5회 통일선교학교와 통일선교주일 행사

통일선교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걸쳐 제5회 통일선교학교를 개최하여 통일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과 통일의 꿈을 함께 품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강사로 오신 송실대학교 하충엽 교수님은 통일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제시하고 핵무기와 순교의 피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비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통일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나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맥락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인 윤덕룡 박사님이 오셔서 독일

통일과정을 소개해주시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북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도전해 주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탈북민 출신 여성 목회자인 평택 하나비전교회 송신복 목사님이 오셔서 탈북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통일조국을 향한 꿈과 비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남서울은혜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오셔서 지나온 교회의 통일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며 탈북민 사역의 반성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시간시간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이 통일을 배우고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0주년 창립기념주일을 한 주 앞둔 6월 셋째 주일인 17일에 주님의교회에서는 통일선교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1~4부 대예배 시간에 탈북 청년들의 간증과 특송의 시간이 있었고, 담임목사님께서 사무엘 하 5:1-5 말씀으로 <헤브론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에는 온 성도들이 소망의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습니다. 또 이날 로비에서는 주님의교회 통일선교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을 전시하여 성도님들의 큰 주의를 끌었습니다. 주님의교회 통일선교위원회는 하나원 사역과 탈북동포 구출을 담당하는 하나원부, 남북청년모임인너나들이 모임을 섬기는 북한이탈주민지원부, 탈북민 공동체와 대안학교를 섬기는

대외활동지원부, 각종 통일선교사역 전반을 섬기는 통일선교지원부로 이루어져서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종교단속 강화로 조종점경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협력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여 비전트립이 취소되고 선교현장과 직접 연결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선교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20일에는 주님의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있는 ‘통일선교바자회-통일장마당’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일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귀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는 윤바나바·김은비사역자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이 땅에 온지 어느덧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얼마전 두 아들 디모데와 요셉은 졸업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곳에 와서 유치원, 초·중등과정을 마쳤고, 이곳에 왔을 때 21개월이었던 요셉은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엄마에게만 붙어있어 '껌딱지'로 유명했던 둘째가 중학생이 된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희는 둘 다 각자의 사역이 있다 보니 아이들끼리 방치되는 시간들이 많아서 참 미안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빠, 엄마처럼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해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의 중보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와 요셉이가 성장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더디게 돌아와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골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신 두 형제 자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던 꼬밀 형제 가정과 2년전 역비전트립을 다녀간 나르기자 자매 이야기입니다.

꼬밀 형제는 1994년부터 알고 지내는 태권도를 통하여 만난 형제입니다. 윤사역자가 U국을 떠난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CISCTN(구 소련권 크리스찬 네트워크)모임 때도 꼭 참석하며 함께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24년을 좋은 친구로만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 보내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



학생들과 함께 한 나르기자 자매. 역비전트립으로 주님의 역사를 받아 용기를 얻은 후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위로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는 꼬밀형제 부부에게 천국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양육을 받으며 한걸음 한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르기자 자매는 저희가 키르기스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지내는 이제는 가족 같은 자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얼굴은 너무나 어둡고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자매였습니다. 수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는 자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는 자매의 강점을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직장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일을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런 자신이 싫고, 밍다며 한없이 울기도 하며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 끼어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며 자란 것이 원인이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만을 나무라는 엄마를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시행하는 역비전트립에 대해 얘기하며 주님께서 자매를 초청하신다고 말했을 때 자매는 눈물을 쏟아내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

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의 역비전트립을 다녀온 자매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는데, 예전과는 달리 얼굴이 밝아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고, 그 후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비 사역자가 소개해준 시골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며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역비전트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자매의 삶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역비전트립 (7/4~7/10)으로 형제자매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번 기도제목을 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많은 분들의 중보 덕분에 한 영혼이 변하고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과 키르기스 영혼들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의 관심, 중보와 후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



오랜 친분 끝에 주님을 영접한 꼬밀 형제 가정. 함께 한 사역자 부부의 얼굴은 보안을 위해 모자이크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키르기스스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하여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

다. 그 충격에 한참을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으며 지내던 어느 날, 부인과 함께 U국에서 키르기스스탄에 왔습니다. 이스쿨에서 몇일 쉬기도 하고 관장님(윤사역자)도 보려고 왔다

목회 칼럼

감동은 시를 만들고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구를 만들고 형성할 만큼 감성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그리움이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를 만드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 보게 된 아름다운 바다나 하늘이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너무 너무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자아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함축해 버린 이 말은 이미 여러분의 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의 세계로 입문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명의 시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인물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시어는 ‘할렐루야, 바위, 피난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일생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위’, ‘요새’, ‘피난처’는 다윗이 고초를 당할 때 다시 말해 다윗이 쫓기는 삶에(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처해 있을 때에 많이 사용되었던 시어들입니다.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위’, ‘요새’,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간절히 고백하였던 다윗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시편에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의미를 가진 말로써 감탄사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탄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일생을 들어 감탄하고 감탄을 하였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은 시와 찬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감동을 이와 같은 시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진 시편을 3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시와 찬양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 모를 긴 세월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시의 운율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화자의 마음이 현재 나의 마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감동으로 기도하며 그 감동이 차마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시가 됩니다. 시의 운율이 더 깊은 감동이 되어 질 때 비로소 그것은 찬양이 됩니다.

찬송가 640장부터 645장의 모든 찬양의 가사는 ‘아멘’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



동의 시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그저 따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깊은 고백에 동참하며 음율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삶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감동으로 여러분만의 시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매일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시와 찬양으로 가득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재설 목사

사역 소식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18기 결혼예비학교 수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편 1절)

지난 6월 3일에 주님의교회에서는 제18기 결혼예배학교가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신혼 2커플과 결혼을

앞둔 5커플, 이렇게 총 7커플이 등록하여 3주간 모든 교육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커플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들과 삶의 실질적인 지혜들이 주어지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첫 시간에 성경적 가정의 이해를 다루고, 여러 전문 강사들을 통하여 닥

은 듯 다른 우리(공통점과 차이점),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의사소통 훈련),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성경적 재정), 크리스천의 성에 대해서 각각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어우러져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커플 동작 테라피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습니다! 18기 결혼예비학교에 함께 하여 훌륭하게 수료한 모든 커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가을에 있을 19기 결혼예비학교에도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허준 목사

신임 임직자 소감 및 각오

2018년 6월 24일, 2017년에 피택되었던 항존직 22명이 피택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는다. 교회 30주년을 맞는 이 뜻 깊은 해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데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창립 40주년을 향한 그 첫해에 안수를 받는 신임 항존직 여러분의 소감과 각오를 여기에 실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의지를 초석에 새긴다. 중직자로서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더욱 헌신할 것을 고백하는 이분들을 교우들과 함께 축하한다.

함글함글



김광일 장로

주님의교회 장로로 임직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에 임직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진대 좋은 교우들,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따라 주님의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되기를 기도합니다.



손영익 장로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제가 과분한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한없이 무겁습니다. 늘 말씀 대하고 실천하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하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말없이 섬기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동역자들과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병길 장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저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국호 안수집사

예배에 대한 헌신성/ 영적훈련에 대한 적극성/ 물질에 대한 순결성에 대한 물음에 "나는 임직전과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치열하게 자기 훈련하는 주님의교회 임직자가 되길 다짐하는 바입니다.



김태진 안수집사

항존직이란 직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주님의교회에 반듯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중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배태민 안수집사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힘쓰겠습니다. 성전을 받치는 작은 돌 하나가 되겠습니다.



손상수 안수집사

자격 없고 초라한 저를 택하시고 아무 능력 없는 저를 사용하심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인 줄 압니다. 주신 직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신형 안수집사

피택을 받고 나서 6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으면서 가슴 저리도록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임정식 안수집사

주님의교회 안수집사 피택을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실천미션인 성경적인 삶, 예배의 기쁨과 감격, 거룩한 일상,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다음세대 양육,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 권 안수집사

감사하게도 불러주사 주님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한 여러 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주님을 선명히 뵈는 그날을 사모하며,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앙망합니다.



정상기 안수집사

에벤에셀~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빛진 자로서,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정유석 안수집사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에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한없는 크신 사랑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최현배 안수집사

먼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군사로 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권석자 권사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상처를 입은 교우를 위로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며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로 교역자와 성도님을 위한 겸손한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민 권사

말은 이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권사직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항상 겸허한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송희 권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신임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신 사역에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성자 권사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부족한 자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윤실 권사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택하여 자녀삼아 주시고 주님사역의 지경을 넓히는데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거룩한 예배에 동참케하시고, 바른 신앙관으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헌신하며,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봉사과 섬김에 힘쓰기를 다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윤석춘 권사

항존직으로 임직 받게 하신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직분자로 출발점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장현주 권사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 네가 필요하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적용하며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장혜숙 권사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맡은바 직분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기를 힘쓰며, 수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정희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항존직으로 임직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낮아짐의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 주신 이 땅의 소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장은찬 아기**

2018년 3월 3일생

1. 건강하고
2. 매사 긍정적이며 감사할 줄 알고
3.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하기를

아빠 장윤수 / 엄마 최성미, 2018년 6월 10일 2부 예배

**강이엘 아기**

2018년 3월 23일생

1.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주시길
2. 항상 건강하길
3.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아빠 강원영 / 엄마 김도연, 2018년 6월 10일 3부 예배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배달의 함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님의교회의 참 ‘좋은 선교지’, <함글함글>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교회 밖 어떤 분이든, 주소와 보내드릴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시면, 나올 때마다 저희 함글함글팀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곧 신청하세요!

함글함글
 알립니다
1.전교인 큐티세미나 : 오전10:30 대예배실

▶ 3차 : 6/30(토) ▶ 4차 : 7/7(토)

강사 : 서승동 목사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저자)**대상 :**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2.7.8월호 큐티책(큐티인) 판매****일시 :** 6/24(주일) 오전 8:30~오후 2:00 로비(1층)**가격 :** 5,000원(권당 할인금액 500원은 교육목회원 큐티책 지원에 사용됩니다)**3.창립 30주년 행사**

① 사진전 : 6/24(주일) 교회 현관(1층)

② 은퇴식 및 임직식 : 6/24(주일) 4부 예배시 ▶ 꽃다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력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창립 30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예고)**한국 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함글함글>에서는 지난 2015년, 주님의교회 27주년기념 특집기획으로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라는 제하의 지상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초심을 되살려,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날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했던 기획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소명>을 쓴 오스기니스의 고백과 같은 슬픈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이탈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선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 온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임을 고백했었습니다. 창립 당시 교회의 본질을 잃고 외형과 규모의 성장에만 몰두하던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주님의교회였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제도는 남아 있되 주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가졌던 깊은 성찰과, 교회 안팎의 일상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던 올곧음은 빛이 바랜 듯하여, 초심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상토론은 351호(2015. 7. 5)에서 시작하여 358호(2015. 12. 20)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에 걸쳐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회 내부 기고 외에도 <주님의교회 25년사> 필자인 최영재 목사,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송실대 김희권 교수, 박춘희 송파구청장, 장신대 장신근 교수, 지동소 전 정신여고 교장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날카로운 지적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주년을 맞아, <함글함글>에서는 눈을 좀 더 높이 들어 사회와 교회를 동시에 살펴보려 합니다. 교단과 교회의 올해 표어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또한 교단 신학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깊이 있게 모색해온 공적신학의 여러 영역들 역시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인 사회는 그동안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경계가 휘발되었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상상력과 소통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낳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환경 문제, 실업과 빈부의 격차, 가족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재구성 등의 현상은 전통과 관습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님의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참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할 <함글함글>의 특집은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고,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실천적 자세를 모색하는 이 기획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